

전북인재 양성 방안 모색에 힘써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차보고회... 성과 발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항운)가 교육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3일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 및 교육실에서 열린 연차보고회는 지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연차보고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패턴분석 연구 △전북대와 전주교대의 지역 학생선발 실태분

석 통한 정책 제안 △2018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사업 평가 △전북지역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및 성취수준별 비율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학교 내 인권보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 등 5개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현장교사가 참여해 제안하고 연구를 수행한 10개 팀의 프로젝트과제도 연구자가 직접 발표했다. 특히 '전북대와 전주교대의 지역 학

생선발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 제안 연구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추후 지역인재 입학기회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지역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및 성취수준별 비율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전북형 학교 알리미 서비스 구축을 통한 성취평가제 운영 내실화와 질적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19년 연구계획도 발표했다. 연구소는 올해 △특성화고 이슈

와 미래 운영 방향 △전북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전라북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순환전보 조항 개정 방향 △초·중·고 혁신학교 사례 연구 △전북학생해양수련원 교육과정 내실화 및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진행했다.

김항운 소장은 "연차보고회는 전북교육정책을 공유·공감하며,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자리"라며 "특히 올해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밀착형 연구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2019년 연구계획을 함께 발표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용진중학교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성장 교육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용진중, 자아성장 교육통합 프로젝트 추진

용진중학교(교장 고승식)는 2학년 학생(29명, 전체)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준중, 딱 좋다!'를 주제로 자아성장 교육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상호작용, 집단작업, 역할나누기, 미션 수행, 영상작업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일부터, 스스로 찾아 기획할 수 있는 주도적 힘을 배양하여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모든 과정을 학교 교과담당 선생님과 함께 함으로써 교사·학생 간에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생동

감이 있고, 즐거운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지만 학급 인원이 29명으로 학생들은 과밀에 따른 스트레스,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 환경 하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추진한 선생님(오명자)은 "다양한 학생들이 하나의 교실에서 갈등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하면 훨씬 더 쉽고 행복해 진다는 것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 전국 1위 '쾌거'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2019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전국 교육대학교 중 1위를 차지했다.

초등교원 선발인원이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임용률이 낮아진 가운데, 전주교육대학교는 79.9%(전년 대비 △3.9%)의 임용합격률을 기록했다.

전주교대는 이번 교원임용시험에 292명이 응시했으며 그 가운데 230명이 합격했다.

전주교대생들이 응시한 시·도교육청별로는 전북교육청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8명, 충남 50명, 전남 21명, 세종 14명, 서울 10명, 경남 9명, 강원 4명, 대전·충북·울산·경북이 각 3명, 부산·인천 각 2명, 광주·제주 각 1명 순이었다.

김우영 총장은 "임용시험 합격률 1위를 달성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이 결과를 위해 노력한 교수님들의 열성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복지 및 장학혜택 확대 등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 것"이라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지난 11일 리사이틀홀에서 글로벌리더스 최고위과정 제1기 수료식을 가졌다.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노력을"

전주대 글로벌리더스 최고위과정 제1기 수료식 거행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11일 리사이틀홀에서 글로벌리더스 최고위과정(이하 최고위과정) 제1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송성환 도의회의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한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장, 나중우 전주문화원장, 심재기 전주에총회장, 최무연 한국아시아우호재단 본부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주대 흥성택 평생교육원장의 회고

사를 시작으로 이호인 총장의 수료증 수여 및 표창과 전달, 도내 기관장 표창 수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학교 발전과 원우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강성준 원우회장과 조성운, 정정화 수석부회장이 전주대 총장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수료생들에게도 도시사상, 국회의원상, 시장상, 모범중소기업인상, 도전한국인 나눔봉사상, 신지식인상 등을 각각 수여했다.

최고위과정 수료생들은 "최고위과정

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시대 리더가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마인드를 갖추게 됐다"며, "배워던 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인 총장은 "최고위과정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혁신을 이끌어 가는 든든한 토대를 닦게 됐다"며, "최고위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고위과정 1기생들은 전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장은성 기자

"신뢰·사랑받는 체육회로 우뚝 설 터"

전북체육회, 체육행정 효율성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신뢰받는 체육회, 사랑받는 체육회'로 우뚝 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3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효율적인 체육행정을 구축하고 전북체육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올해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예산 투명성·경영 효율성 제고 ▲성과지향 경영체계 확립 ▲체육정보 공유 확대 및 체육자산 가치제고 등이다.

이에 경영채신 등 합리화 추진에 앞장서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중목단체의 투명성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행정지도도 실시하고, 체육회관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도 내실있게 운영해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조직문화도 개선하고 임직원 역량에도 힘쓰기로 했다.

사무처와 회원단체간의 소통의 장을 넓히기위해 간담회와 직무교

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체육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된다.

또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를 실현하기위해 책임경영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으로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는 창의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 운영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내 또는 국내·외 각종 체육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이밖에도 전북체육 발전의 원동력이 된 원로체육인들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북 체육자산의 가치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육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위해 체육회가 존재하는 것이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동행체육을 실천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읽고 말하며 글쓰는 문화 정착 기대

도교육청, 학생저자 출간회 가져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5일 2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학생저자 출간기념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뜻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 사제동행 독서, 연구활동 등을 거쳐 책을 낼 수 있도록 학생 책쓰기 동아리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그 규모도 해마다 확대돼

2018년에는 95팀의 책쓰기 동아리가 선정돼 활동해 왔다.

활동 분야도 다양하다. 지역 어르신 자서전 쓰기, 창작 소설, 과학 프로젝트, 지역 조사 연구, 영어 에세이 모음집, 지역 설화 그림책 등이다.

이번 행사는 전신과 사래 나눔, 북 콘서트로 구성된다. 식전행사로 전북 청소년 영화제 우수작을 상영하고 행사한 권을 전시장으로 꾸며 2018

년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며, 본 행사에서는 우수 동아리의 사례 나눔에 이어 초청 북뮤지션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가 펼쳐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의 많은 학교에서 사제동행 책쓰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학생저자를 배출한 지 여러 해 만에 이런 행사를 열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제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독서·글쓰기 문화는 물론, 더 많은 학생들이 읽고 말하며 글쓰는 문화를 정착시켜나간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